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에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school)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리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내 진정 사모하는(찬88/새88장)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박영덕 장로 2부/박원규 장로 3부/왕동원 장로 4부/김유리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는 나의 피난처(작곡 Allen Pote)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세례/입교식(2부) Baptism & Confirmation..... All together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7:7-12.....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태복음 5:13-20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게임 체인저(30) 기도 굴리기

4부..... Rev. Breno Prudente de Oliveira Jr. 브레노 목사
영향력을 가지는 경건한 생활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죄짐 맡은 우리 구주(찬487/새369장), 나는 믿네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가을 단풍+짜장면보다 베델교회

Bethel Church over Autumn leaves + Jjajangmyun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이번 한국 방문 시기는 단풍이 절정이던 때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자문위원 모임과 코로나로 인해 밀렸던 스케줄을 한꺼번에 진행하느라 잡힌 시기가, 기대치 않았던 단풍의 절정과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흑백이던 세상이 아름다운 총천연색으로 변해 눈 앞에 펼쳐지니 저절로 탄성이 나왔습니다. 늘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17년 넘게 살면서 가을 단풍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한국 음식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기대되는 설렘이지만, 뜻하지 않는 가을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성도들과 단풍 구경 갔다가 만난 짜장면집에 쓰여 있는 문구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맛집으로 소문난 짜장면집이었는데, 주차장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짬뽕 없습니다. 탕수육도 없습니다. 짜장면만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당이라 하지 않고 짜장면집이라고 소개한 식당인데, 손님들은 한 시간 반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겨우 들어간다고 합니다. 식당에 들어서기 전 또 하나의 문구가 있는데, “우리는 뻥한 음식을 팔지 않습니다.” 메뉴도 필요 없이 달랑 짜장면만 하나 있는 식당이 뭐가 저렇게 당당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으로 들어서면 순간 또 하나의 글귀가 손님을 반깁니다. “이 문만 통과하면 손님 집입니다.” 당당함을 넘어 비범함과 묘한 따뜻함마저 느껴지는 식당입니다. 주문받을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나오는 짜장면은 모두 “내 평생에 먹어본 짜장면 중에 최고다.”라며 먹는다고 합니다. 직원들뿐 아니라, 사장님까지 나와서 짜장면 먹는 법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짜장면 맛을 한층 돋워 주는 기분 좋은 짜장면집이었다고 합니다.

가을 단풍 구경 나온 손님들에게 단풍보다 더 기분 좋은 짜장면 맛을 보게 하는 식당의 당당함이, 이 시대의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을 문득 해 봅니다. 교회 주차장 입구에 이런 간판 하나 세워 놓으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다른 메뉴 없습니다. 복음만 있습니다.” 주보를 받아 들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헌금함 옆에 또 하나의 사인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당신은 이 하나님의 집(베델)의 VIP입니다.” 주차장에서 안내하시는 밝은 표정의 성도들부터 예배 후 카페에서 만나는 맛있는 커피까지 베델 성도님들의 친절은 마치 고향 내 집에 온 것처럼 편하고 포근하게 합니다.

짜장면집 마지막 인사가 있습니다. 돈 내고 나갈 때 있는 글귀가 손님을 웃게 합니다. “가끔 와야 짜장면이 맛있습니다.” 자주 오지 말라는 말 같지만, ‘안 오면 당신 손해야’라고 말하는 것 같은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물론 교회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올수록 맛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최소입니다. 가을 단풍을 잊게 하는, 매일 와도 맛있는 우리 베델교회 되십시오.

My visit to Korea was at the peak of autumn leaves season. I was there to attend a Westminster Seminary Advisory Committee meeting as well as to catch up on my scheduled events that had been postponed due to Covid. It happened to fall on the season of autumn leaves. As I saw the beauty of multi-colored leaves unfolding before my very eyes, as if the world had been in black and white, I was in awe. I constantly forged ahead looking at what is in front of me. While living in California for over 17 years, I realized that I had forgotten about the autumn leaves. Expectation of eating good food is exciting when visiting Korea. Visiting Korea this autumn was comfort and a gift from God.

I read a post by a pastor who described signs that were on a jjajangmyun restaurant he went while taking a trip to see the autumn leaves with his congregation. This restaurant was well known for good food. There is a sign at the parking lot entrance. “We don’t have Jjamppong. We also don’t have Tangsuyuk. We only have Jjajangmyun.” This is why this restaurant is known as a jjajangmyun restaurant and not a Chinese restaurant. Customers have to wait in line for over an hour and half to get in. Just before entering the restaurant, there is another sign that says, “We don’t sell ordinary food.” It seems very bold for a restaurant that only sells jjajangmyun and no other menu. But the minute you enter the restaurant, you’re greeted with yet another sign. “As soon as you pass through this door, this is your home.” It is beyond boldness. This made you feel extraordinary and warm. Without ordering, jjajangmyun comes out. Everyone praises as they eat, “This is the best jjajangmyun I have ever eaten in my whole life.” Not just the servers but the owner come out to instruct you on how to eat their jjajangmyun, raising yet another bar for this restaurant. The pastor acclaimed that it was a wonderful experience to eat here.

The boldness of this restaurant, with desire to serve the best jjajangmyun to customers who came for autumn leaves, perhaps, should be the image of churches today. How about if a sign is posted at the entrance of our parking lot, “Our church doesn’t have other menu. We only have Gospel.” Then, after receiving a copy of Sunday bulletin, as you enter, there’s a sign next to the offering box, “Today’s message is not ordinary.” And another sign shows, “The moment you enter this sanctuary, you are a VIP in God’s house(Bethel).” Kindhearted Bethel members, from smiling faces of parking lot attendants to Café servers, will make everyone feel comfortable like they are at home.

There is a farewell sign in this jjajangmyun restaurant. Customers laugh as they pay and make their way out. “Jjajangmyun tastes good, when you eat it once in a while.” It sounds like they don’t want you to come often, but it feels more like boldness of saying, ‘You will miss out if you don’t come’. Of course, church feels better when you come often and not once in a while. Minimum is once a week. Let our Bethel church make you feel good even if you come every day. So good that it will make you forget about autumn leaves.



주일설교시리즈

산상 설교 강해- 제30편

게임 체인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기도 굴리기

(마 7:7-12)

1. 옛날 살던 집이나 동네를 수 년 후에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2. 하나님을 향한 설렘과 기대의 최대 표현은 기도입니다. 간절함을 나타내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로 가지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7-8절)

3. 주님이 기도를 간절히 할 것을 말씀하시며, 계속 동작의 시제를 사용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7-8절)

4. 9-11절을 읽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참고/ 롬 8:32)

5. 주님이 주신 황금률은 긍정적인 황금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구할 기도의 제목도 변하는 것이 있습니까?(12절)

적용하기



Family Fall Festival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도록...

이번 2022 Fall Fest에 아빠, 엄마와 함께 각 Station을 방문하여 즐겁게 지내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기 위한 이 일에 조금이나마 힘을 합하게 되어 더욱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시내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이번 2022년 Fall Fest를 위해 섬겨 주신 많은 분의 헌신과 섬김 덕에 베델 교육부에 속한 아이들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나라 믿습니다.

김중현 집사(소망부 팀장)

하나님은 소망부에 속한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Family Fall Fest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이 시간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안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언제나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망부 모든 지체에게 통합 활동 기회를 주고자 세심하게 준비하고 배려해 주신 소망부 전도사님과 봉사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차 안에서 아이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며 베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음에 감사합니다.

김진숙 성도(소망부 학부모)

Fall Fest 준비는 행사 전날, 전체 교육부의 뜨거운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귀신 문화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축제를 누리기를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도 함께 참여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눅 24:46)을 암송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축제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길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축제날 오전, 선생님들은 그날의 큐티 말씀(시편 13:1~6)인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한자리에 모여 Fall Fest 장식을 준비하였습니다. 풍선 매듭을 짓다가 손가락에 피를 보신(?) 분도 계셨고 열심히 만든 풍선 더미의 묶음이 풀려 그 많은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 버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자녀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축제를 즐기기를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인해 봉사하는 선생님들 사이에선 내 웃음이 끊이지 않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저도 그 기쁨과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베델교회 교육부에 감사드립니다.

박정현 사모(K-1 교사)

학교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동네로 향하는 대신에 Family Fall Fest가 열리는 베델교회

로 향하는 발걸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그 이유는, 할러윈 데이가 사탕 받는 날, 유령 귀신의 집을 구경하는 날로 인식되기보다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며 믿지 않는 친구들도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하기를 항상 바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학년인 첫째 아이가 예배 시간 시작 전에 Praise Team이 연습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저거 언제 할 수 있냐며 자기도 율동팀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열심히 율동을 따라 하며 찬양하는 둘째를 보며 대견하기도 하고 이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찬양과 말씀, 매직쇼와 공연들, 카니발과 음식들 등 정말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음에, 그리고 이 하루를 위해 힘써 준비해 준 셀 수 없는 손길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많은 아이가 스케벤저 헌트의 미션을 받아 color man 들을 찾아다니며 말씀 암송을 하고 스티커를 받고, 마지막 미션으로는 Gospel Station에 가서 선생님 한 분이 학생 한 명을 맡아 아이들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며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이 값진 경험을 토대로, 매년 이 때마다 안 믿는 친구들이 이 Family Fall Fest에 데려와 같이 즐기며 전도하고, 믿지 않





Family Fall Fest

는 가정들이 교회에 나올 기회가 많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유지혜 집사(유년부 학부모)

신나고 풍성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베델의 Family Fall Fest로 귀여운 복장을 한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축제의 시간, 게임도 하고 선물도 받으며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아이들은 세상의 문화와 구별하며 기억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둠 속에서 성경 구절을 외우는 우리 아이들의 눈동자는 festival의 그 어떤 조명보다 더 반짝였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즐겼던 아이들뿐 아니라 저에게도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명선 권사(K-1 교사)

정말 신나는 Family Fall Festival이었어요! Mr. Brad의 마술쇼는 너무나 신기했고 색색깔의 웃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한 보물찾기도 재미있었으며 사탕도 많이 받았답니다. 가스펠 스테이션, 바운스 하우스, 그리고 게임들도 최고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걸작품이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를 위한 이 아름답고 환상적인 축제를 위해, 열심히 수고해 주신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도움 주신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시현 학생(유년부)

가을이 되어 날씨가 쌀쌀해지니 하엘리와 함께 교회에 가는 것이 좀 걱정이 되었지만, 하엘리가 교회에 가자며 조르는 것을 보고 길을 나섭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역시 입구에서부터 멋진 풍선 장식이 우리를 환영했고 풍성한 먹거리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날을 보낼 수 있는, 아이에게 기억될 만한 날이라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Family Fall Fest로 세상과 구별된 축제 속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행복한 추억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하나 집사(영아부 학부모)

한국에서 들려온 핼러윈 압사사고 소식과 미국에 넘쳐나는 마약류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뉴스들로 암울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자리는 더욱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른 오후부터 기대와 설렘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아이들, 유모차에 어린 아기들을 태우고 오신 부모님들, 그중에는 난생 처음 아이와 함께 교회에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모든 분의 마음속에 사랑보다도 달콤한 예

수님의 사랑이 오늘 밤, 가득 채워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의 분주한 수고에 감사했고, 한참 친구들과 어울려 즐길 법한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와 더 어린 친구들을 위해 수고하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이런 베델의 아름다운 문화가 해를 거듭할수록 풍성해져서, 믿음의 아이들이 많이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혜성 사모(영아부 교사)

훌륭한 자녀를 둔 교회 어르신에게 저는 자녀 양육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늘 여쭙니다. 그러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이 돌아오는데 그것은 아이를 교회 마당에서 키우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한바탕 아이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풍성한 놀거리, 달달한 먹거리로 아이들은 신이 나서 웃고, 아이들의 웃음에 행복해진 부모가 웃고, 그렇게 피어나는 가정의 행복에 웃으시는 호뭇한 하나님의 미소가 보입니다. 떠들썩한 잔치 뒤에는 묵묵한 수고의 손길이 있음을 알기에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유아부를 비롯한 베델의 교육부와 수많은 봉사자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교회 마당에서 한 뼘 더 자란 아이를 보며, 교회 공동체가 있어 참 행복합니다!

한정훈 성도(유아부 학부모)

베델 선교-멕시코 일일 선교

그래서 (못)하든지, 그래도 (못)하든지...



올해 상반기 아들과 멕시코 일일선교를 다녀온 후 하반기도 함께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현재 선교지는 코로나와 감기가 유행 중이며 비포장도로의 흙먼지가 늘 세차게 날리는 곳이라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다음 기회를 권면하셨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나에게도 치명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이번 선교는 고민 끝에 미루기로 했습니다. 11월 첫 쿼터 중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이라는 말씀을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길 원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도망치듯 나온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



기를 기도하며 재등록으로 선교에 합류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날씨는 놀랍게도 바람 한 점 없는 봄날 같은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배식팀에서 열심히 햄버거를 만들며 팀원들과 함께 섬겼고, 아들은 의료팀에서 기본적인 서포트를 하며 열심을 냈습니다. 바람이 부는 곳인데 그날은 바람 한 점 없는 햇살 따뜻하고 청명한 날씨였고 이런 날씨는 보기 힘들 정도라고 현지인들이 말했습니다.

배식을 마친 후 노방 전도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나 함께 간 멕시코 간사가 복음을 전했더니, 아픈 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3명은 함께 손을 얹고 할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할머니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얻은 귀한 열매였습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번 선교에 특별한 동행으로 저와 아들을 불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지숙 집사

티후아나의 산 중턱에 세워진 현지 교회에는 이미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 명의 동네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료받고 약을 타는 사람들, 안경을 받으며 좋아하는 사람들, 살아서 처음 침을 맞고 신기한 얼굴로 나오는 사람들, 선물과 사진을 받고 좋아하는 어린이들, 정성으로 준비한 푸짐한 햄버거를 먹으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2천여 년 전 예수님께서 마을을 방문하실 때마다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빵과 생선을 나누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라는 감동으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비록 단 하루지만 우리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이 전해지고 뿌리를 내려 언젠가는 구원의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팀 모두가 정성을 다해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친구와 가족들과 찍은 즉석 사진을 받아보며 즐거워하는 어린이들과 동네 사람들의 맑은 눈망울을 마주 보며, 함께 미소를 지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소망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김도석 집사

베델 사역

웨딩 사역팀

베델의 웨딩 사역은 베델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이 성경적 결혼을 통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입니다. 웨딩 사역은 교회 내부에서 행해지는 결혼 예식뿐 아니라, 원하시는 장소에서도 예식이 진행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웨딩 사역팀은 담당 전도사님과 수고하시는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때 예식마다 아이디어를 나누고 회의를 거쳐 신랑신부의 의견과 개성을 존중하여 예식을 준비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여러 번의 미팅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은사를 모아 최고의 예식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교회에서의 경건한 예식문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결혼 적령기에 있는 자녀의 부모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장미꽃이 가시가 많은 이유는 아름답고 화려한 꽃잎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꽃 중에서 특별히 장미를 많이 사용하는 데, 사역팀원들이 준비하면서 장미 가시에 찔리면서도 까르르 웃으며 서로 격려하고, 역할 분

담에도 서슴지 않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바로 동역의 기쁨이 아닐까 합니다. 아름다운 예식을 위해 아낌없이 시간과 재능을 올려 드리는 예식팀원들 한분 한분 모두 너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행해진 예식을 통해 아름답게 시작하는 새로운 가정들에게 은혜롭고 귀하신 저희 사역팀이 첫걸음을 출발하는 예비부부들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힘차게 시작하는 웨딩 사역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이태연 권사 (949)812-1626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목회지원/선교/QT: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부/전도복합: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교 전도사

BGC: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예배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배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배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홍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베델 셀목자
‘셀동산’

지역광고

성인 세례식,
입교식

우리가 옷을 수선하려 할 때 꼭 필요한 도구인 바늘과 실,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바늘이 더 하는 일이 많아 보이는데, 정작 옷을 수선하고 나면 그 자리를 메꾼 실이 보입니다. 어쩌면 눈에 크게 보이지 않지만, 바늘 이상으로 정말 중요한 도구가 실이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셀지역에서도 셀목자로 부부가 함께 섬기는데, 앞에서 남성들이 일을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뒤에서 정말 필요한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아나 되시는 여성 셀목자임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셀목자의 배우자(여성)와 여성 셀목자님을 위한 "여성 셀동산"을 개최합니다. 함께 모여 맛난 음식과 교재, 그리고 음악도 함께 들으며,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성 셀목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 일시: 11월 19일(토) 오전 7시 30분-1시
- ▶ 장소: BGC 채플
- ▶ 대상: 셀목자의 배우자(여성), 여성 셀목자
- ▶ 문의: 임낙현 장로 (949)383-7177

오늘 2부 예배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과 동시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귀중한 영광스러운 예식에 세례자와 입교자분들을 위하여 베델의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교(13명):** 김선우(Shawn), 노하승(Jacob), 박예희(Kaylynn), 심하음(Christine), 윤예인(Trinity), 이예강(Yegang), 이예림(Yerim), 이지유(Ivy), 이하빈(Habeen), 이하준(Hajun), 정세린(Sherlynn), 정세민(Shane), 홍은지(Claire)

▶ **세례(20명):** 강민석(Minsuk), 강세훈(Sehun), 강현빈(Daniel), 기승효(Jayden), 김나경(Cristina), 김민(Eric), 김세기(Brian), 김유리(Yoori), 김현지(Hyunji), 박성익(Sungik), 박윤수(Yoon), 변정아(Jeongah), 백승현(Seunghyun), 사아곱(Jacob), 이병천(Byungchun), 이선영(Seonyoung), 이승재(Richard), 이찬우(Jason), 정종호(Jayoh), 하유진(Eujin)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1,12월) | 11/20: ①부-박재문 ②부-박호성 ③부-송용훈 ④부-나승호
11/27: ①부-연규호 ②부-윤영걸 ③부-박지학 ④부-박양아
12/4: ①부-선상균 ②부-변준호 ③부-이강훈 ④부-이병천

헬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1,12월) | 11/19: 이명환 11/26: 이삼열 12/3: 이동오 12/10: 이완희
강단꽃(11,12월) | 11/13: 이주은 11/20: 성홍숙 11/27: 주정숙, 박정화 12/4: 이종선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마준(한외과), 간호사-박규희

다음주 | 의사-송영실(한외과), 간호사-채수정

선교후원

[팍송선교사] 창익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박기쁨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익식(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익적접근지역 | 이희숙, 김예령(김진영), 희바(배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이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세례/입교식** 오늘 2부 예배 중 세례/입교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선언하는 귀중한 시간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7면 참고)

*예배 후에 세례/입교자들의 단체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또한 코트야드 포토존에서 가족별 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 **성찬식** 11월 20일(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세례/입교 교인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한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 나눔 토크 콘서트** 추수 감사주일을 맞아 성도님들의 감사 사연과 음악이 어울어진 감사 나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2022년 한해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 셀이나, 팀 또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는 상품이 있고, 터키 만찬도 준비됩니다. 행사 당일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11월 20일(주일) 오후 4시 30분, 베델교회 코트야드

응모 마감일: 11월 13일(주일)

응모 방법: 교회 앞 부스에 준비된 엽서에 기록하여 응모함에 넣어주세요.

이메일(hongsikkim@bkc.org)로도 응모 가능합니다.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 **수요 예배** 이번주부터 정승락 목사님께서 "온전한 삶으로의 여정(나아만)"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함께 현장 예배에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2022 하반기 베델 셀목자 "셀동산"** 1년간 셀모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해 주신 여성 셀목자님들을 위한 "여성 셀동산"이 열립니다. 신청링크를 각 목장별로 발송해 드렸으니 셀목자의 배우자(여성), 여성 셀목자들은 모두 참여하시어 위로와 교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7면 참고)

일시/장소: 11월 19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 BGC 채플

문의: 임낙현 장로 (949)383-7177

◆ **11월호 교회학교 큐티인 판매** 영문 11월호 큐티인이 실내 카페에서 판매 중입니다. 오늘 실내 카페에 들리셔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오실 경우는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교회학교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교사 & TA), 초등부(2,3부 교사 & TA)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섬김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예살 선교의 밤** 2022년 예살의 선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마음 써주신 분들을 초대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사님들과 소통하는 "예살 선교의 밤"을 가집니다. 예살의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선교를 위해 애쓰는 예살의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11월 18일(금) 저녁 7시 30분, 임마누엘 채플

문의: 강문구 목사 (949)506-6905

◆ **Samaritan's Purse Shoe Box 캠페인** 매년 가난 가운데 고통하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Shoe Box는 교회학교 check in 부스에서 픽업하시면 됩니다. 선물로 준비된 Box는 주중에 교회 사무실이나 주일에 같은 장소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모집 기간: 10월 30일(주일)-11월 20일(주일)

문의: 최병웅 집사 (714)586-6703

◆ **2023년 베델 한국학교 봄학기 등록 안내** 베델 한국학교가 대면과 비대면 수업으로 2023년 봄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봄학기에도 많은 관심과 등록을 바랍니다. 토요일 오전반은 대면 수업이며 오후반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효율적인 학급 편성을 위해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사들도 모집 하고 있습니다.

등록 방법: 베델 한국학교 홈페이지 school.bkc.org, 10월 31일(월)부터 등록 가능

기간: 1월 21일-5월 13일(16주, 4월 8일 부활절 휴강)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12시 30분(대면)/오후 1시 30분-3시 30분(비대면)

수업 내용: 큐티, 한국어, 한국 문화

대상: 5세 이상부터 중고등 학생(2022년 9월 1일 기준, 킨더 이상)

등록 기간: 10월 31일-11월 21일

등록비: 대면-\$310(문화 수업 및 간식 포함), \$330(11월 21일 이후)

비대면-\$210(문화 수업 포함), \$230(11월 21일 이후)

◆ **위로해 주세요**

- 故 김기봉 성도님(김명숙 권사의 부친, 박문수 집사의 장인)께서 10월 29일(토)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 故 Patsy Jane Enyart 권사님(김경수 집사의 모친, 김정희 권사의 시모)께서 10월 31일(월)에 오레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 故 최기병 집사님(이선옥 권사의 부친, 이태영 장로의 장인)께서 11월 7일(월)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윤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에 집사, 정보미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Prayer that Painstakingly Repeats

(Matthew 7:7–12)

- 1.** Have you ever visited your hometown or home where you used to live, after being away for many years? How did that feel?
- 2.** Our ultimate expression of excitement and expectation toward God is prayer. What is the subject of our prayer that 'Ask', 'seek', and 'knock at the door' that shows your earnestness?(vv.7-8)
- 3.** Why did He continue to use action verbs when He spoke of earnest prayer to God?(vv.7-8)
- 4.** Read verses 9-11 and think about the importance of confirming just who is listening to our prayers.
(Ref: Ro 8:32)
- 5.** The Golden Rule from God is a positive Golden Rule. If we pray believing in Heavenly Father who hears our prayers, will the subject of our prayers change?(v.12)

Apply to Life

